

중국 고대 문헌의 ‘同名異書’ 현상과 《夜航船》의 사례

이 기 훈*

<目次>

- | | |
|-----------------|-------------------|
| I. 서론 | III. 同名異書 점검의 필요성 |
| II. 고대 문헌의 同名異書 | IV. 《夜航船》의 同名異書 |
| 1. 同名異書의 변천 개요 | V. 결론 |
| 2. 同名異書의 주요 원인 | |

I. 서론

본 연구주제는 필자가 한국연구재단 명저번역사업 연구 텍스트인 《夜航船》의 선행연구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 중에 同名異書가 있음을 알게 된 후 관심을 두게 된 내용이다. 즉 宋世瑞의 <《夜航船》作者“破額山人”爲沈欽道考>(2017)¹⁾라는 논문을 보고 破額山人이 《夜航船》의 작자 즉 張岱와 동일 인물로 오해했다가 각기 다른 사람이 같은 제목의 서적을 쓴 것을 알게 되었다. 필자가 무지한 탓인지 이전 연구 과정 중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접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특이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계기로

* 국립공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宋世瑞의 <《夜航船》作者“破額山人”爲沈欽道考>(《文學遺產》, 2017.03.)는 《吳江沈氏家譜》 등의 자료와 破額山人 저작 《夜航船》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파역산인이 청대 시인 沈欽道라고 주장하는 논문이다.

同名異書 현상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중국 학계에서는 同名異書 현상에 관한 공구서가 출간되었고 약간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국내 중문학계에서는 同名異書 현상에 관한 논문은 전무하다.²⁾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연구자들은 同名異書 현상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것일까? 필자의 추측으로 연구자들이 보통 연구 주제를 정한 후 그 문헌의 판본 즉 善本을 선정하는 것에는 심혈을 기울이지만 그 과정 중에 발견하는 同名異書는 연구 대상이 아니므로 바로 제외하거나 그저 단순한 오류로 치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연구 중의 많은 오류가 아주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문헌 판본의 우열도 중요하나 해당 문헌이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정확한지, 제목과 표제어만 보고 잘못 선정하는 것은 아닌지 그 正誤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유과정으로 본고에서는 우선 고대 중국 문헌의 同名異書 현상에 대해 개괄해보고, 이어서 同名異書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마지막으로 번역연구 대상인 《夜航船》의 同名異書 사례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다.

II. 고대 문헌의 同名異書

본장에서는 먼저 중국에서 同名異書가 언제부터 등장하고 어떤 문인이

2) 工具書로는 張雪庵의 《古書同名異稱舉要》(濟南: 山東人民出版社, 1980), 杜信孚·趙敏元·毛僅儀 編著 《同書異名通檢》(江蘇人民出版社, 1982)와 《同名異書通檢》(江蘇人民出版社, 1982), 杜信孚·王劍《同書異名匯錄》(鳳凰出版社, 2000)가 있다. 2023년 11월 3일 현재 중국의 경우 CNKI中國知網에서 ‘同名異書’로 검색된 소논문은 모두 12건이고, 국내의 경우 DBpia와 KISS 2개 사이트 모두 0건에 해당한다.

처음 인지했는지 그리고 시대별로 어떻게 변천했는지 확인하고, 고대 문헌 중 同名異書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同名異書의 변천 개요

중국에서 옛 문헌 중 ‘다른 이름의 같은 책(同書異名)’과 ‘같은 이름의 다른 책(同名異書)’이 등장하는 일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전자는 한 가지 책이지만 이름이 약간씩 달리 전해지는 것으로 가령 《詩經》을 《詩三百》, 《毛詩》라고 말하거나 《史記》를 《太史公傳》, 《太史公記》, 《太史公書》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예가 있다.³⁾ 후자는 전혀 다른 책이지만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령 《春秋》는 孔子가 지은 魯나라의 史書라고 알려졌지만 당시 제후국에는 모두 《春秋》⁴⁾를 지었으므로 여러 권이 있었던 것이 그 예이다. 그렇다면 본고의 논의 주제인 ‘同名異書’는 서명은 같지만 작자와 내용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서적을 지칭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同名異書 현상은 이미 秦漢시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明代 胡應

- 3) 참고로 ‘同書異名’ 현상에 대해 최초로 주목한 자는 아마도 한나라 劉向인 것 같다. 그가 〈序錄〉에서 밝히기를, “그 안의 책들은 본래 혹은 《國策》, 혹은 《國事》, 혹은 《短長》, 혹은 《事語》, 혹은 《長語》, 혹은 《修書》라고 불렀습니다. 신은 이를 전국시대 유사들이 나라를 보좌하기 위해 썼던 책략이라 생각하고 《전국책》이라 하였습니다.(中書本號, 或曰《國策》, 或曰《國事》, 或曰《短長》, 或曰《事語》, 或曰《長書》, 或曰《修書》, 臣向以爲戰國時游士輔所用之國爲之策謀, 宜爲《戰國策》.)”라고 했다. 즉 皇家 書庫를 정리하면서 戰國縱橫家의 언사를 기록한 6종의 서적을 발견했는데 내용이 같지만 각기 다른 명칭을 갖고 있어 이를 정리하여 《전국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 4) 司馬遷은 《史記》卷八十〈樂毅列傳第二十〉에서 “신이 듣기에 현명하고 성스러운 군주가 공을 세우면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춘추》에 이름을 남깁니다.(臣聞賢聖之君, 功立而不廢, 故著於《春秋》.)”라고 했고, 唐代 劉知幾는 《史通》卷一〈六家〉에서 “목자가 말하기를 ‘내가 여러 나라의 《춘추》를 보았다’고 했는데 대략 이것을 가리킨다.(墨子曰‘吾見百國《春秋》’, 蓋皆指此也.)”라고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여러 권의 《춘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麟의 《少室山房筆叢》卷二 〈經籍會通三〉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선진양한 기간의 諸子 서적은 이름이 같은 것이 매우 많다. 대개 모두 성씨를 가지고 호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서적 중 전해지는 것은 매우 드물고 또한 문장의 의미가 급한 바가 아니므로 종종 그 한 가지 서적만 알지 두 가지나 있는 것은 모른다. 비록 박학다식한 사인이 간혹 그 두 번째까지는 알긴 하지만 서너 가지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지는 못한다.

先秦兩漢間子書, 名同者甚衆. 蓋皆以姓爲稱故爾. 然其書傳者甚希, 又非文義所急, 故往往知其一不知其二, 雖博雅之士, 或知其二未必知其三四也.⁵⁾

이를 통해 同名異書가 선진시기부터 존재했다는 점, 제자서는 성씨로 명명했기에 同名異書가 많다는 점, 의외로 많은 학자가 同名異書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책에서는 위 설명에 이어 31개 조에 걸쳐 두 개 이상의 같은 이름을 가진 서적을 나열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孟子》, 《荀子》, 《董子》, 《莊子》, 《景子》, 《吳子》, 《商子》, 《田子》, 《鬻子》, 《兒子》, 《劉子》, 《桓子》, 《蘇子》, 《張子》, 《韓子》, 《徐子》, 《墨子》, 《毛公》, 《王孫子》, 《容成子》, 《鶡冠子》, 《尉繚子》, 《淮南子》, 《平原君》, 《太玄經》까지 각 2종, 《賈子》, 《務成子》가 각 3종⁶⁾, 《李子》, 《鄒子》가 각 4종, 《孫子》가 5종, 《公孫子》가 7종의 같은 이름 서적이 존재한다. 이같은 내용을 통해 중국에서 同名異書는 아주 오래되고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중국학자들은 언제부터 이같은 현상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일까? 同名異書 현상을 최초로 기록한 서적은 아마도 唐代 長孫無忌, 魏徵 등이

5) 胡應麟, 《少室山房筆叢》, 上海書店出版社, 2001.

6) 曹之의 〈同書異名與同名異書〉(《圖書館工作與研究》, 1988.09.30. 41쪽.)에서도 《少室山房筆叢》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蘇子》를 2종이 아닌 3종으로 잘못 기술했다. 이후 馬劉鳳(2013), 葉侑毅(2019) 등도 동일한 오류를 답습하고 있다.

편찬한 《隋書》〈經籍志〉가 아닌가 싶다. 〈經籍志〉는 《隋書》 안의 十志 중 하나로 《漢書》〈藝文志〉와 함께 漢·唐 학술의 연혁을 아는 데 중요한 書目文獻이다. 〈經籍二〉에서 《史記》부터 《正流論》까지 역대 역사서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중 《後漢書》의 同名異書を 발견할 수 있다.

《후한서》130권본.[〈帝紀〉에는 없고 吳나라 武陵 太守인 謝承이 찬했다.] ... 《후한서》17권본.[본래 97권으로 지금은 잔결되어 있고 晉나라 少府卿 華嶠가 찬했다.] 《후한서》85권본.[본래 122권으로 晉나라 祠部郎 謝沈이 찬했다.] ... 《후한서》95권본.[본래 100권으로 晉나라 祕書監 袁山松이 찬했다.] 《후한서》97권본.[宋나라 太子詹事 范曄이 찬했다.] 《후한서》125권본.[范曄本으로 梁나라 剡令 劉昭가 주한 것이다.] ... [梁나라 蕭子顯의 《후한서》100권본이 있다.]

《後漢書》一百三十卷.[無帝紀, 吳武陵太守謝承撰.] ... 《後漢書》十七卷.[本九十七卷, 今殘缺. 晉少府卿華嶠撰.] 《後漢書》八十五卷.[本一百二十二卷, 晉祠部郎謝沈撰.] ... 《後漢書》九十五卷.[本一百卷, 晉祕書監袁山松撰.] 《後漢書》九十七卷.[宋太子詹事范曄撰.] 《後漢書》一百二十五卷.[范曄本, 梁剡令劉昭注.] ... [梁有蕭子顯《後漢書》一百卷.]⁷⁾

대부분 正史 25史 중 하나인 范曄의 《後漢書》만 알지 같은 이름이지만 저자가 다른 《後漢書》가 6종이나 더 존재한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또한 《晉書》도 王隱의 86권본, 虞預의 26권본, 朱鳳의 10권본, 謝靈運의 36권본, 臧榮緒의 110권본, 蕭子雲의 11권본 6종의 同名異書가 있고⁸⁾, 《晉紀》도 陸機의 4권본, 干寶의 23권본, 曹嘉之의 10권본, 鄧粲의 11권본, 劉謙之의 23권본, 王韶之의 10권본, 徐廣의 45권본 7종의 同名異書가 존재한다고 기록하고 있다.⁹⁾

7) 《隋書》卷三十三 志第二十八 〈經籍二〉(955쪽.)

8) 《隋書》卷三十三 志第二十八 〈經籍二〉(955쪽.): “《晉書》八十六卷.[本九十三卷, 今殘缺. 晉著作郎王隱撰.] 《晉書》二十六卷.[本四十四卷, 訖明帝, 今殘缺. 晉散騎常侍虞預撰.] 《晉書》十卷.[未成, 本十四卷, 今殘缺. 晉中書郎朱鳳撰, 訖元帝.] ... 《晉書》三十六卷.[宋臨川內史謝靈運撰.] 《晉書》一百一十卷.[齊徐州主簿臧榮緒撰.] 《晉書》十一卷.[本一百二卷, 梁有, 今殘缺. 蕭子雲撰.]”

당·송대 이후로는 인쇄술의 발명, 보급 그리고 확장으로 인해 도서출판의 수량이 대량으로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同名異書 역시 점점 더 많아졌다.¹⁰⁾ 당·송대 문인들의 문집 중 同名異書가 많았다는 사실은 清代 俞樾의 《茶香室叢鈔》에서 볼 수 있다.

宋代 趙與峯의 《賓退錄》에서 말하기를, 彭器資·洪忠宣 모두 자신의 문집을 《翻陽集》이라 불렀고, 王岐公·張彥正 모두 자신의 문집을 《華陽集》이라 불렀으며, 楊文定·胡文定 모두 자신의 문집을 《武夷集》이라 불렀고, 魏仲先·李漢老 모두 자신의 문집을 《草堂集》이라 불렀으며, 謝無逸·俞退翁·傅子駿 모두 자신의 문집을 《溪堂》이라 말했고, 蘇子美·張會川·張徽 모두 자신의 문집을 《滄浪》이라 말했으며, 李師中·石守道 모두 자신의 문집을 《徂徠》라고 말했고, 晏元獻·王荊公 모두 자신의 문집을 《臨川》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갑자기 그 이름을 보면 혼돈스럽지 않을 수 없다.

宋趙與峯《賓退錄》云：彭器資、洪忠宣皆號《翻陽集》，王岐公、張彥正皆號《華陽集》，楊文定、胡文定皆號《武夷集》，魏仲先、李漢老皆號《草堂集》，謝無逸、俞退翁、傅子駿皆曰《溪堂》，蘇子美、張會川、張徽皆曰《滄浪》，李師中、石守道皆曰《徂徠》，晏元獻、王荊公皆曰《臨川》，驟見其名，未免疑混。”¹¹⁾

同名의 서적이 이렇게 많은 것은 옛 문인들에게도 제법 혼돈을 가져다 준 모양이다. 청나라는 지배 세력인 만주족이 한족을 제압·회유하기 위해 성리학, 양명학 등의 공허한 담론을 비판하고 실학을 제창하여 考證學이란

9) 《隋書》卷三十三 志第二十八 〈經籍二〉(958쪽): “《晉紀》四卷.[陸機撰.] 《晉紀》二十三卷.[干寶撰. 訖愍帝.] 《晉紀》十卷.[晉前軍諮議曹嘉之撰.] … 《晉紀》十一卷.[訖明帝. 晉荊州別駕鄧粲撰.] … 《晉紀》二十三卷.[宋中散大夫劉謙之撰.] 《晉紀》十卷.[宋吳興太守王韶之撰.] 《晉紀》四十五卷.[宋中散大夫徐廣撰.]”

10) 葉侑毅, 〈中國古代圖書出版中的同名異書現象〉(《大觀》, 2019.04. 154쪽): “至於唐宋以後, 由於印刷術的發明、普及和推廣, 圖書出版數量大量增加, 同名異書也隨之越來越多。”

11) 俞樾, 《茶香室叢鈔》卷三十三〈集名相同〉, 北京: 中華書局, 1995. 1655쪽.

새로운 학문을 제창했다.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소위 經書에 대한 고증이 활발해졌고 그 과정에서 역시 대량의 同名異書가 출현한다. 經書에 관한 諸說·沿革 따위를 망라한 目錄書인 清代 朱彝尊의 《經義考》에 의하면 《易說》이란 이름의 서적은 90종이 있고, 《易經》과 《易傳》이란 이름의 서적은 모두 40여 종이 있으며, 《周易注》란 이름의 서적은 40종, 《書說》이란 이름의 서적은 20여 종, 《尚書解》란 이름의 서적은 20종, 《詩說》이란 이름의 서적은 약 17종, 《詩解》라는 이름의 서적은 약 16종, 《春秋傳》이란 이름의 서적은 약 20여 종, 《春秋解》라는 이름의 서적은 약 15종, 《春秋談》이란 이름의 서적은 약 14종, 《春秋論》이란 이름의 서적은 10종에 달한다.¹²⁾

근현대 이후 서양의 목록학·서지학이 전파되고 역대 문헌 중 同名異書만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낀 일부 학자가 전문 공구서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1980년에 출간된 張雪庵이 저술한 《古書同名異稱學要》에는 先秦부터 清末까지의 同名異書 약 5,600종이 수록되어 있고, 1982년 杜信孚가 저술한 《同名異書通檢》 안에는 3,500여 종의 同名異書가 수록되어 있다.

2. 同名異書의 주요 원인

그렇다면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이처럼 많은 同名異書가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학자가 그 원인을 제시한 바 있는데 曹之(1988)는 2가지¹³⁾, 馬劉鳳(2013)은 3가지¹⁴⁾, 葉侑毅(2019)는 5가지¹⁵⁾, 黃威(2021)는 4

12) 馬劉鳳의 〈古籍同書異名與同名異書原因探析〉(《圖書館理論與實踐》, 2013, 第10期, 78쪽.) 참조

13) 曹之는 〈同書異名與同名異書〉(《圖書館工作與研究》, 1988.09.30. 42쪽.)에서 첫 번째, “옛 시기 서명은 (진한시대) 저자의 성명을 가지고 명명하는 일이 많은 편이다. 이것이 많은 서적 명칭이 중복됨을 피할 수 없게 만든 이유이다. (第一是早期書名, (秦漢時期)以著者姓氏命名的比較多, 这就不可避免地造成書名大量重復.)” 두 번째, “고대에는 정보가 원활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제공되

가지 원인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본장에서는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를 살펴본 후 가장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黃威(2021)의 4가지 원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黃威는 고대문헌의 同名異書 현상이 발생하게 원인을 기존 학자들과 달리 일단 ‘四部典籍’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래서 經部·史部·子部·集部の 4가지로 나눈 후 다시 그 안에서 경우를 세분하여 원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經部典籍同名異書現象’이다. 이것은 經部典籍의 생산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부는 몇 가지 주요 原典 즉 經書를 중심으로 제작되는데 漢代의 五經이라든가 宋代의 十三經이 그것이다. 경서에 주석을 달

는 도서목록이 실제로는 많지 않았다. 보통 사람들은 전국적인 또는 지역적인 도서목록을 볼 수 없었고 이것 역시 서명의 중복을 쉽게 만든 이유이다.(第二是古代信息不靈, 供人翻閱的圖書目錄實在太少, 普通人簡直無法看到全國性或者地區性的圖書目錄, 这也容易造成書名重複.)”라고 제시한다.

- 14) 馬劉鳳는 〈古籍同書異名與同名異書原因探析〉(《圖書館理論與實踐》, 2013, 10期, 78쪽.)에서 첫 번째, “명명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고서는 대부분 저자 이름으로 명명했는데 선진양한시기는 더욱 그랬다. 역대로 동명 동성의 사람이 세상에 많았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성명으로 책이름을 지으면 同名異書는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다.(第一, 命名方式相似. 古書多有以著者稱謂命名者, 先秦兩漢時期尤其如此, 而歷代同名同姓者太有人在, 若皆以姓名名書, 則同名異書不可避免.)” 두 번째, “찬술한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고대에는 내용이 비슷한 작품이 많았기 때문에 서명 역시 비슷하거나 동일한 것이다.(第二, 撰述內容相似. 古代許多內容相似的作品, 書名也多相似或相同.)” 세 번째, “서명을 연용하기 때문이다. 전대에 세상사람들이 칭찬하여 말하는 책이 있으면 후대인이 그것을 모방하여 짓기 때문에 서명이 종종 비슷하거나 동일한 것이다.(第三, 書名沿用. 前代有著作為世人稱道者, 後人便仿效其作, 書名往往相似或相同.)”라고 제시한다.
- 15) 葉俏毅는 〈中國古代圖書出版中的同名異書現象〉(《大觀》, 2019, 04, 154-155쪽.)에서 첫 번째, “저자의 호칭으로 명명하는 전통습관(以著者稱謂命名的傳統習慣)”, 두 번째, “찬술한 내용의 유사함으로 비롯된 것(撰述內容相似所致)”, 세 번째, “동일한 작가가 두 종의 다른 서적을 저작할 때(同一作者著兩種不同的書)”, 네 번째, “동일한 서명을 그대로 연용한 것(同一書名的沿用)”, 다섯 번째, “회람할 수 있는 도서목록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沒有可供傳閱的圖書目錄)”이라고 제시한다.

고 해설하는 서적은 ‘傳’·‘注’·‘說’·‘義疎’·‘音義’·‘集解’ 등의 용어를 벗어나기 어렵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위에서도 거론한 朱彝尊의 《經義考》에 나온 《易說》의 同名異書가 90종이나 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 ‘史部典籍同名異書現象’이다. 史書는 서명을 통해 서적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요구에 따라 명명이 한정된다. 가령 漢나라 때 사서라면 응당 ‘漢’이라는 시대명이 들어가야 하고 여기에 ‘書’·‘史’·‘紀’·‘傳’·‘志’·‘譜’ 등의 체제 또는 기능을 나타내는 용어를 써서 그 성격을 규정짓기 때문에 쉽게 同名異書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위에서 거론한 《隋書》〈經籍志〉에 8종의 《後漢書》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이다.

세 번째, ‘子部典籍同名異書現象’이다. 黃威는 여기서 자부전적을 다시 漢代 이전에 만들어진 子書와 農家·藝術 등 實用類 전적 2가지로 나누었다. 전자 子書의 경우 대다수 인명으로 이름 짓는데 그 구체적 형식은 ‘姓+名’ 혹은 ‘姓+子’이다. 각기 다른 서적의 작자가 이름이 같다면 同名異書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가령 《漢書·藝文志》의 〈諸子略·儒家〉에 《孟子》가 있지만 〈諸子略·陰陽家〉에도 《孟子》가 있는 것과 같은 예이다. 이는 위에서 胡應麟의 《少室山房筆叢》卷二 〈經籍會通三〉에서 수많은 예시를 보인 바 있다. 후자는 실용성이 강해서 반드시 그 주제와 내용을 드러내야 하므로 同名異書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가령 《茶錄》은 蔡襄, 程用賓, 馮時可가 지은 것이 있고, 《碩譜》는 李之彦, 蘇易簡, 高濂이 지은 것이 있다.

네 번째, ‘集部典籍同名異書現象’이다. 이것 역시 편집자가 누구냐에 따라 저자 본인인 경우와 타인인 경우 2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 전자는 저자 본인이 의도한 목적에 의해 同名異書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東漢 이후 문인들은 典故, 化用古語 등 방식을 통해 고아하고 멋스러운 서명을 짓고자 했다. 게다가 의식적으로 겸손과 겸허를 드러내기 위해 古人的 것을 숭상하여 작명했다. 가령 ‘燕石’¹⁶⁾, ‘覆瓿’¹⁷⁾, ‘石田’¹⁸⁾, ‘敝帚’¹⁹⁾,

16) 燕山에서 산출되는 광석인 嬰石을 말한다. 《太平御覽》에서 《鬪子》를 인용해 玉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옥이 아닌 돌로서 宋의 어리석은 자가 이를 진짜

‘鷄肋’²⁰⁾은 모두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이고 각각 同名異書가 여럿 존재한다. 후자는 타인이 문집을 편집할 때 보통 ‘인물 호칭(성명, 관직, 群望, 別號, 齋號 등 포함)+集’의 형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호칭들이 같을 때 同名異書가 출현한다는 것이다. 가령 《大彰山人集》이나 《拙齋集》이 그러한 경우이다. 한편 總集이나 選集처럼 여러 문인의 작품을 한 데에 모으는 경우도 일정 범주를 같이 하여 수록하다보니 종종 同名異書가 출현하기도 한다. 가령 明代 曹學佺과 李攀龍, 清代의 吳翊鳳과 陳世鎔 등은 각각 《唐詩選》라는 선집을 출간했고, 唐代 胡曾과 周曇, 清代 陳坤·鮑桂星·王廷紹·謝啓昆·曹振鏞 등은 모두 《詠史詩》를 만들었다.

Ⅲ. 同名異書 점검의 필요성

본격적인 번역·분석·고찰을 하기 전 확보한 문헌이 연구자 본인이 연구하려는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단순하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많은 연구자가 의외로 이 기초단계를 소홀히 하여 종종 큰 실

옥으로 믿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고사를 서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리석은 자 혹은 虛飾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를 비유하는 말로 쓰였다.

- 17) 장독을 덮는 종이를 말한다. 《漢書》〈揚雄傳〉에 나오는 이야기로 양웅이 평생 정력을 쏟아 《太玄經》을 완성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자 그의 친구 劉歆이 걱정하며 했던 말에서 나왔다.
- 18) 자갈이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밭을 말한다. 《左傳》〈哀公十一年〉에 伍子胥가 越王 句踐에게 뚫나라를 조심하라고 경계시키면서 제나라를 토벌하여 승리하더라도 돌밭을 얻는 것이나 같으니 쓸모가 없다고 한 말에서 비롯되었다.
- 19) 다 떨어진 빗자루를 말한다. 漢나라 劉珍의 《東觀漢紀·光武帝紀》에 집안의 닢아 떨어진 비를 천금처럼 귀하게 여긴다고 말한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쓸모 없는 물건을 비유한다.
- 20) 닭갈비 즉 먹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는 물건을 말한다. 《三國志·魏書·武帝紀》에 유비와 조조가 한중 지역을 놓고 대치하고 있을 때 장수 夏侯惇이 조조에게 암호를 묻자 계락을 말했는데 이를 주부 楊修가 의미를 간파하고 철수 준비를 시켰다는 고사에서 비롯되었다.

수를 범한다. 이것이 본고에서 同名異書 현상에 주목하게 된 계기이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본장에서는 同名異書 고찰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기술해 보고자 한다.

元豐 3년[1080] 백 삼일간의 옥고를 치른 蘇軾은 결국 黃州로 폄적된다. 당사자야 실의에 빠져 누구보다 괴로웠겠지만 이 시기 그의 문학적 감성은 폭발하여 인구에 회자되는 〈赤壁賦〉를 지었고 또 최장편의 茶詩 〈寄周安孺茶〉라는 작품을 만든다. 그는 차로 상징되는 군자의 강직하고 깨끗한 품성을 묘사하고, 차가 사람의 몸과 마음에 가져다주는 기쁨을 표현하였다. 여기에 “아, 나의 즐거움이 얼마나 깊은가, 《수경》 역시 여러 번 읽었지.(嗟我樂何深, 水經亦屢讀.)”²¹⁾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마침 游國恩의 《중국문학사》에서 이를 인용하여 《水經注》를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 아래 해당 내용을 살펴보자.

당대 유종원, 송대 소식 등의 산수 산문은 모두 그의 영향을 받았다. 소식은 〈기주안유차시〉에서 “오늘 나의 즐거움이 얼마나 깊은가, 《수경》 역시 여러 번 읽었지.”라고 노래했다. 이 책에 사람을 이끄는 예술적 매력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唐代柳宗元、宋代蘇軾等人的山水散文，都曾經受過他的影響，蘇軾〈寄周安孺茶詩〉說：“今我樂何深，《水經》亦屢讀。”可以想見此書吸引人的藝術魅力。²²⁾

대문호인 蘇軾이 《수경주》를 애독했다고 茶詩에서 밝히고 있으니 《수경주》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강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鄭德坤의 《水經注引得》(哈佛燕京學社, 1934.), 陳橋驛의 〈論酈學研究及其學派的形成和發展〉(《歷史研究》, 1983.), 陳橋驛의 《酈道元與水經注》(上海人民出版社, 1987.), 譚家健의 〈《水經注》的文學成就〉(《文學遺產》, 1982.),

21) 蘇軾, 孔凡禮點校, 〈寄周安孺茶〉;《蘇軾詩集》第4冊 卷二十二, 中華書局, 1982. 1165쪽.

22) 游國恩 等 主編, 《中國文學史》第1冊(人民文學出版社, 2000, 333쪽.)

李憑·王振芳의 《酈道元與〈水經注〉》(河北教育出版社, 1988.), 周谷城 主編의 《中國學術名著提要》〈歷史卷·水經注條〉(復旦大學出版社, 1994.), 陳玉剛의 《中國文學通史》(西苑出版社, 1996.), 宋尚齋의 《中國古代文學史綱》(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3.) 등에서도 동일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니 학계에서 거의 공인된 평가라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런데 蘇軾의 시에서 언급한 ‘水經’이 酈道元の ‘水經注’와 동일한 서적이 확실한지 불분명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가지는 동일한 서적이 아니며, 이는 학자들이 同名異書를 알지 못하고 전인의 착각을 그대로 차용한 탓에 벌어진 오류이다. 그러면 蘇軾 시에 나온 《水經》은 《水經注》가 아닌 어떤 서적인가? 陳亮은 〈《水經》同名異書考辨〉에서 “소식 시 속의 《수경》은 결코 《수경주》가 아니고 張又新의 《煎茶水記》이다.”²³⁾ 라고 지적한 바 있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 나오는 《煎茶水記》에 대한 해제를 살펴보자.

葉清臣은 張又新이 이 책을 《水經》이라 불렀다고 써놓았다. 내가 볼 때 《太平廣記》399卷에서도 이 책을 인용했는데 역시 《水經》이라고 불렀다. 혹은 처음에는 《水經》이라 이름했다가 후에 제목을 바꾸었는데 酈道元이 쓴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인가?

清臣所記, 稱又新此書爲《水經》. 案《太平廣記》三百九十九卷引此書, 亦稱《水經》, 或初名《水經》, 後來改題, 以別酈道元所誌歟?²⁴⁾

위 제요를 통해 宋代 葉清臣의 《述煮茶泉品》과 李昉 등이撰한 《太平廣記》에서 《煎茶水記》를 《水經》이라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목제요를 기술한 청나라 학자 역시 《太平廣記》에서 호칭이 달라지는 것이 역도원의 《수경주》와 구분짓기 위해서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사

23) 陳亮, 〈《水經》同名異書考辨〉(《古典文獻研究》, 2007.08.31, 450쪽): “蘇詩中的《水經》, 並不是《水經注》, 而是張又新的《煎茶水記》.”

24) 永瑤等撰, 《四庫全書總目提要》卷一一五〈子部·譜錄類〉(中華書局, 2003. 990쪽.)

실 葉淸臣이 《述煮茶泉品》에서 이미 “酈道元은 《수경》에는 뛰어나지만 일찍이 차를 알지 못했다.(酈元善於《水經》而未嘗知茶.)”라고 말했고, 북송의 劉旻은 《龍雲集》에서 “溫庭筠, 張又新, 裴汶之와 같은 사람들이, 혹은 《茶錄》을 찬하고, 혹은 《水經》을 짓고, 혹은 《顧渚》를 기술했다.(溫庭筠、張又新、裴汶之徒, 或纂《茶錄》, 或制《水經》, 或述《顧渚》.)”라고 말하는 등 《水經注》와 《水經》이 다른 책이라고 말하는 자료는 부지기수이다.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문학계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중국문학사》와 저명 학자들조차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은 모두 同名異書 점검의 필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IV. 《夜航船》의 同名異書

《야항선》의 同名異書에 대해 언급하려면 우선 그 이름의 출처와 작명의 유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관련 내용은 장대가 쓴 서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옛날에 한 승려가 어떤 선비와 야항선에서 함께 잠을 잤다. 선비가 고상한 이야기들을 유쾌하게 떠들자 승려는 두려워하며 다리를 움크리고 잠을 잤다. 승려가 듣기에 그의 말에 허점이 있어 바로 말했다. “상공께 여쭙겠습니다. 담대명명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선비가 대답했다. “두 사람입니다.” 다시 승려가 물었다. “그러면 요순이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선비가 대답했다. “당연히 한 사람이지요!” 승려가 이에 웃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니 소승은 이제 다리를 쭉 펴고 자도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내가 기록한 것은 모두 눈앞의 매우 얇은 지식이나, 우리가 우선 기억해서 저 선비처럼 승려가 다리를 쭉 펴게 되는 망신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책 이름을 《야항선》이라고 지었다. 고검도암노인 장대가 씀.

25) 陳亮, <《水經》同名異書考辨>(《古典文獻研究》, 2007.08.31. 451쪽.)참조.

昔有一僧人，與一士子同宿夜航船。士子高談闊論，僧畏懼，拳足而寢。僧人聽其語有破綻，乃曰：“請問相公，澹臺滅明是一個人、兩個人？”士子曰：“是兩個人。”僧曰：“這等，堯舜是一個人、兩個人？”士子曰：“自然是一個人！”僧乃笑曰：“這等說起來，且待小僧伸伸脚。”余所記載，皆眼前極肤淺之事，吾輩聊且記取，但勿使僧人伸脚則可已矣。故即命其名曰《夜航船》。古劍陶庵老人張岱書。²⁶⁾

위 내용을 통해 우리는 당시 명말 강남지역의 대운하에서 밤중까지도 배를 운행했다는 점, 승려와 선비까지 다양한 승객들이 이용했다는 점, 그리고 너도나도 대중 앞에서 자신의 얘기를 늘어놓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장대는 《야항선》을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참고할 지식 수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 같다.

《야항선》은 이렇게 “촌부나 보통 사람들도 그들의 학문을 모두 미리 갖춰두어야 한다.”²⁷⁾라는 목적으로 지은 소형 백과사전이었지만 혼란했던 시대상 때문인지, 장대 자신이 소홀했던 탓인지 의외로 널리 유행하지 않았던 것 같다. 69세에 장대가 남긴 〈自爲墓誌銘〉에도 《石匱書》 등 15종이나 되는 자신의 저술을 나열하지만 《야항선》은 보이지 않는다.²⁸⁾ 사실 장대의 의도와 달리 《야항선》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출판과 유통에 있다. 즉 “《야항선》은 간각된 적이 없고 초사본만 전해졌다. 게다가 읽은 사람도 극히 적어서 심지어 청대 파역산인의

26) 張岱撰·李小龍整理, 《夜航船》, 北京, 中華書局, 2021. 7쪽.

27) 張岱撰·李小龍整理, 《夜航船》(北京, 中華書局, 2021. 7쪽.): “蓋村夫凡子, 其學問皆預先備辦.”

28) 물론 康熙 56년(1717), 장대의 손자인 張禮가 《西湖夢尋》을 출간하면서 〈凡例〉에서 “본래 찬술을 많이 하셨으니, 저술에는 《도암문집》·《석계전서》·《야항선》 및 《쾌원도고》가 있다.(素多撰述, 所著如《陶庵文集》、《石匱全書》以及《夜行船》、《快園道古》.)”라고 한 내용을 근거로 《야항선》의 완성이 비교적 늦었기 때문에 〈自爲墓誌銘〉에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필기소설집인 《야항선》을 장대가 쓴 책으로 오해하기도 했다.”²⁹⁾

금서목록에 편입된 것도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요인이라 말할 수 있다. 韋明鐸에 의하면 “청나라 《勸毀淫書徵信錄》 ‘禁毀書目’의 가장 마지막에 열거된 것이 《夜航船》이다. 《江蘇省例藩政》 ‘應禁書目’의 가장 마지막에 개설된 것 역시 《夜航船》이다.”³⁰⁾라고 한다. 여기서 금서로 정해진 《야항선》이 장대의 것인지 파역산인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이러한 정책이 《야항선》의 출판과 유통에 제한을 주었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야항선》 整理本을 지은 李小龍이 지적한 바와 같이 출판도 되지 않고 제대로 유통되지도 않은 상황에 同名異書가 등장하는 일은 장대의 것을 더 묻히게 만들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同名異書의 존재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공구서 즉 목록서에서 이 두 서적을 오인하는 일이 발생한다.

《야항선》은 여러 서록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종종 청대 파역산인의 《야항선》과 같은 것으로 취급했다. 예를 들어 《續修四庫全書》의 〈子部·雜家類〉에 이 서적이 수록되었는데 《續修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破額山人이 쓴 8권본 《야항선》으로 오인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장대의 《야항선》이 구하기 어려워 말 그대로 300여 년간 ‘잠수’해 있던 탓에 서적의 바다로 출항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저 장대의 《낭환문집》에 수록된 《야항선》의 서언만을 보았을 뿐 직접 본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이다. 余秋雨가 말한 것처럼 “이 책은 많은 학자가 평생을 찾아다녔으나 구하지 못했던 책이다.” 이 책은 1987년 절강고적출판사가 寧波의 天一閣 조사본을 근거로 출판한 것으로 오랫동안 침묵했던 《야항선》이 마침내 서적의 바다로 항해하게 된 것이다.

29) 張岱撰·李小龍整理, 《夜航船》(北京, 中華書局, 2021. 3쪽): “《夜航船》從未刊刻, 僅有鈔本流傳, 且閱者甚少, 有人甚至誤將清破額山人的筆記小說集《夜航船》誤為張岱之書.”

30) 韋明鐸, 〈夜航船·夜行船·夜航集〉(《讀書》, 1989.05.01. 184쪽): “清代《勸毀淫書徵信錄》所列‘禁毀書目’的最末一種, 是《夜航船》; 《江蘇省例藩政》所開‘應禁書目’的最末一種, 也是《夜航船》.”

《夜航船》因歷來不見於各種書錄，所以論者往往將其與清代破額山人的《夜航船》混爲一談，如《續修四庫全書》在子部雜家類收錄此書，而《續修四庫全書總目提要》却誤認爲是破額山人所撰之八卷本《夜航船》。這種情形實因張岱之《夜航船》得之不易，“沉潛”了三百多年，一直未能在書海上出航，許多人只在張岱《琅環文集》中看過序言，能親見的人竝不多，正如余秋雨所言：“這是一部許多學人查訪終生而不得的書。”此書在1987年由浙江古籍出版社根據寧波天一閣抄稿本刊印，沉寂已久的《夜航船》終於得以航行書海。³¹⁾

이에 대해 이은진도 “《제요》에 적힌 이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속수사고전서》에 수집된 책과 《제요》에 기록된 책이 결코 같은 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수집된 책은 20권본이고, 기록하고 있는 책은 8권본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집된 책의 내용에서는 청대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기록된 내용은 모두 건륭·가경 때의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집된 책에는 책의 서문 말미에 〈古劍陶菴老人張岱書〉라고 적혀 있으니, 결코 기록 속에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에 다만 알려진 것은 강소 오현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히 장대의 《야항선》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³²⁾라며 구체적인 오류를 설명했다. 이처럼 목록서에 적힌 《야항선》을 《제요》에서 파악산인이 쓴 것으로 잘못 설명하였기 때문에 후대 학자들이 혼동하게 되었고 이는 꽤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그 사실은 위 인용문에 등장한 余秋雨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작가 余秋雨는 浙江 余姚縣 출생이라 그런지 고향 문화에 관심이 많고 이를 자신의 작품에 잘 반영했다.³³⁾ 〈야항

31) 宋曉麗, 〈張岱《夜航船》研究〉, 湖北大學 碩士, 2007. 9쪽.

32) 이은진, 〈백과사전을 독서하다, 《夜航船》연구〉, 《中國散文研究集刊》第11輯, 2021, 12. 93쪽.

33) 가령 黃飛萍의 〈余味無窮——魯迅和余秋雨的“鄉土情結”之不同〉(《中學語文》, 2016年 5期, 18쪽, 18쪽, 20쪽)에서 “위치우위의 산문을 자세히 음미하면 그의 펜 끝은 조금의 막힘도 없이 역사와 현실의 각기 다른 시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 그의 고향에서의 지난날 그리고 기억의 깊은 곳에 저장된 감정은 마치 역사의 그림자가 날아왔다 떠가는 것 같고, 심금을 울리는 문화산문 안에 감추었다 나타났다가 반복한다. ... 《야항선》 속 어린 시절의 기억 중에 ‘두두’ 소리 나던 배는 목어라고 자신과 논쟁하던 할머니.(細細品味余

선》이란 산문 역시 자신의 고향에서 운행했다는 야간 운항선을 제목으로 삼은 것인데 同名異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아래 그 내용을 보자.

내 책장에는 명대 문학가 장대의 《야항선》 한 권이 있다. 이 책은 많은 학자가 평생을 찾아다녔으나 구하지 못했던 책이다. 이 책은 최근 영과 천일각에 소장되어 있던 초사본에 근거하여 출판되었다. 책이 꽤 두껍고 책등의 글자가 뚜렷해서 책장에 꽂으면 매우 눈에 띈다. 문학계의 친구들이 내 집에 올 때면 종종 새로 나온 장편소설로 오인한다.

我的書架上有一部明代文學家張岱的《夜航船》。這是一部許多學人查訪終身而不得的書，新近根據寧波天一閣所藏抄本印出。書很厚，書脊顯豁，插在書架上十分醒目。文學界的朋友來寒舍時，常常誤認為是一部新出的長篇小說。³⁴⁾

위치우위는 《야항선》이 장대의 것과 파역산인의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많은 학자가 그 책을 구하고자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던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도 아닌 나름 문학계에 있는 친구들은 새로 나온 장편소설로 오인하고 있으니 어쩌면 《속수사고 전서총목제요》에서 同名異書로 인해 장대의 《야항선》을 파역산인의 《야항선》로 잘못 기재한 영향 때문이 아닐까?

이상의 내용을 통해 중국 문헌 중 同名異書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얼마든지 연구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秋雨的散文，他的筆觸幾乎能够毫無滯碍地在歷史和現實的不同時空間自由滑動，而他故鄉的往事和貯存在記憶深處的情感，又像是歷史的影子在飄來浮去，若隱若現在蕩氣回腸的文化散文中。… 《夜航船》里童年記憶中和自己爭論‘篤篤聲是航船還是木魚的祖母。’라며 고향이 산문작품의 모티브가 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34) 위치우위 지음, 유소영·심규호 옮김, 《위치우위의 중국문화기행》 2, 미래인, 2007. 188쪽.

V. 결론

사실 同書異名 또는 同名異書이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한 이론도 아니고 문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라면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현상일 것이다. 그래서 서지학·문헌학·판본학 등 서적 자체를 연구하는 분야가 아니라면 본격적인 연구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하지만 의외로 중문학에서 유독 이러한 현상이 잦아서 자칫 소홀하면 연구 대상을 잘못 선정하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분석·고찰하는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 연구 대상을 정해서 善本을 선택하는 일은 기초 과정에 속하지만 학위 과정 중에 이를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거나 또 연구행위 중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 종종 큰 문제가 발생한다.

본고는 《야향선》 번역연구 중 同名異書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계기로 연구 텍스트를 표제어만 보고 쉽게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기초적인 주의 사항을 새삼 경계한다는 차원에서 시도한 것이다. 마침 아래 목록학 관련 저술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 필자의 결론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도서의 판본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숙지해야 하기에 사람들은 이 目錄書를 빌어 널리 여러 판본을 채집하고, 같고 다름을 校合해 바로잡으며, 교감하고 오류를 고쳐서 精刻·善本을 구해 읽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잘못된 서적을 읽음으로써 학술연구에 해를 끼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진원 선생은 ‘매일 잘못된 도서를 읽고도 알지 못하면, 훌륭한 학문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다.”³⁵⁾

35) 來新夏, 《古典目錄學淺說》(北京: 中華書局, 2003. 57쪽.): “由於了解和熟悉圖書的版本情況, 人們便可借此博采衆本, 讎校異同, 校勘訂誤來求讀精刻善本, 而不致因讀誤書而貽害於學術研究. 陳垣先生說: ‘日讀誤書而不知, 未爲善學也.’”

〈참고문헌〉

- 위치우위 지음, 유소영·심규호 옮김, 《위치우위의 중국문화기행》 2, 서울: 미래인, 2007.
- 來新夏, 《古典目錄學淺說》, 北京: 中華書局, 2003.
- 司馬遷, 《史記》, 北京: 中華書局, 2000.
- 永瑤 等 撰, 《四庫全書總目提要》, 北京: 中華書局, 2003.
- 俞樾, 《茶香室叢鈔》, 北京: 中華書局, 1995.
- 游國恩 等 主編, 《中國文學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0.
- 魏徵·令狐德棻 撰, 《隋書》, 北京: 中華書局, 2000.
- 張岱撰·李小龍整理, 《夜航船》, 北京: 中華書局, 2021.
- 胡應麟, 《少室山房筆叢》, 上海: 海書店出版社, 2001.
- 이은진, 〈백과사전을 독서하다, 《夜航船》연구〉, 《中國散文研究集刊》 第11輯, 2021.12.
- 馬劉鳳, 〈古籍同書異名與同名異書原因探析〉, 《圖書館理論與實踐》 第10期, 2013.
- 宋曉麗, 〈張岱《夜航船》研究〉, 湖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 葉俏毅, 〈中國古代圖書出版中的同名異書現象〉, 《大觀》, 2019.04.
- 韋明鏞, 〈夜航船·夜行船·夜航集〉, 《讀書》, 1989.05.01.
- 曹之, 〈同書異名與同名異書〉, 《圖書館工作與研究》, 1988.09.30.
- 陳亮, 〈《水經》同名異書考辨〉, 《古典文獻研究》, 2007.08.31.
- 黃威, 〈中國古籍西名研究問題解析與理論構建〉, 《圖書與情報》, 2011.04.15.
- 黃威, 〈同書異名、同名異書現象新探〉, 《古籍整理研究學刊》, 2021.05.25.

〈Abstract〉

This research topic began after I learned that there was a different book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the previous research data of 《夜航船》, a research text for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s famous book translation business. In other words, he looked for a paper called “宋世瑞 〈《夜航船》作者“破額山人”爲沈欽道考〉” and initially misunderstood that 破額山人 was the same person as 張岱, but later became different people. With this opportunity, he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phenomenon of the same name.

In this paper, we first outlined the ‘A book of the same name’ phenomenon in ancient Chinese literature, followed by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A book of the same name’ review, and finally considered the ‘A book of the same name’ phenomenon of 《夜航船》, which is the subject of translation research.

It was difficult to know the existence of the 《夜航船》 for a long time because only a copy was handed down after completion, and the 《續修四庫全書總目提要》 incorrectly explained the 《夜航船》 of 破額山人 with ‘A book of the same name’. Therefore, when selecting research text, you should not make an error of selecting only by looking at the title.

Key Words : 동명이서(A book of the same name), 동서이명(Different names in the same book), 야항선(The Night Ferry), 장대(Zhang Dai), 백과사전(Encyclopedia), 목록서(Directory book), 오인(Misidentify)